

보도시점

2025.9.14.(일) 12:00  
(2025.9.15.(월) 조간)

배포 2025.9.12.(금) 17:00

## 하늘 위 전파영토 넓힌다, 한-중 위성망 회의 개최

- AI 시대 데이터 고속도로, 위성망 확보로 뒷받침
- 과기정통부, 9년 만에 한-중 위성망 조정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sup>(항법)</sup>, △천리안2A호<sup>(기상)</sup>, △천리안2B호<sup>(환경·해양)</sup>, △천리안3호<sup>(통신·환경·항법보정)</sup>, △무궁화위성<sup>(상업통신)</sup>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회의의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주요 위성의 안정적 운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대표단 약 24명이 참석해 위성망 간 궤도·주파수 조정 등 70여 건의 의제를 논의한다. 한국 측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항공청,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케이티셋 등 주요 위성·전파 관련 기관이 참석해 실무 협상과 기술 검토를 담당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위성통신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초연결을 지원하는 AI시대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이번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계기로 위성을 활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책임자	과 장	지은경 (044-202-4930)
		담당자	사무관	노인영 (044-202-4935)
담당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미래전파기술팀	책임자	팀 장	이승용 (061-338-4650)
		담당자	연구관	양준규 (061-338-448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성·공공전파융합팀	책임자	팀 장	김재현 (061-350-1541)
		담당자	차 장	정태연 (061-350-146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